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 골로새서
남성구역예배 · 이사야
· 마태복음
· 요한복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 골로새서
남성구역예배 · 이사야
· 마태복음
· 요한복음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인류의 결말이 멸망으로 달음질 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기술과 문명이 희망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인간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은 채, 결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인류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두 가지의 생각이 들 것입니다. 두려움이든지 기다림이든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14:12).

이 세상에 여러분의 행복과 안식의 터를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타락으로 치달는 8월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8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요한계시록 서론

본서는 밧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성경으로, A.D 95-96년경으로 추정된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의 박해로 인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것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요한계시록은 다음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①과거주의자들은 과거시대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②역사주의자들은 요한 시대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의 파노라마로 해석하고 ③이상주의자들은 계시록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보고 영해주의적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④미래주의자들은 장차 성취될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은 대부분 네 번째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네 번째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대하기로 한다.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①1장에 기록된 “네 본 것”과 ②2-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있는 일”이며 ③4장-22장까지 나타난 “장차 될 일”이다.

주요내용

1:1-8	서론
1:9-20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2:1-3:22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4:1-5:14	하나님의 보좌와 두루마리, 그리고 어린양
6:1-8:1	일곱인
8:2-11:19	일곱 나팔
12:1-14:20	여러 인물과 사건들
15:1-16:21	일곱 대접(일곱 재앙)
17:1-19:5	바벨론 : 커다란 배교
19:6-10	어린양 혼인 잔치
19:11-21	그리스도의 재림
20:1-6	천년왕국
20:7-10	마귀의 결국
20:11-15	백보좌 심판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22:6-21	결론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한 계시록에 적용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계시록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함으로 저자가 요한임을 증명하여 줍니다.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기록된 것을 모두 다 지키는 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5절에는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와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식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의 소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심령이 성경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1:9-3:22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이 묘사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을 격려하시고 계시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1:9-20).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7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책망하시는 광경으로 나누어집니다(2:1-3:22).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며(5절), 그는 금촛대, 즉 교회들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20절). 그의 모습은 몹시 권능 있고 두려운 모습입니다(13절-16절).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자 사도 요한이 엎드려졌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졌던 적이 있습니다(사6:5). 그러나 예수께서는 격려하시며 자신의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17,18절). 그리고 요한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진행되는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19절).

여러분들은 예수께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던 평범한 모습이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처절한 모습 정도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분이 얼마나 영광스런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광스럽고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의 터어키 지역으로 여겨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패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주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한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격려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우선 다섯 가지의 칭찬을 합니다(2,3절). ①그들의 수고와 선한 행위에 대해서 ②인내함에 대해서 ③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④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에 대해서 ⑤마지막으로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4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이 상실되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마음을 갈보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머나의 뜻은 “쓰다(bitter)”는 의미로 몰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자부심과 문화 그리고 상업적 부와 사교생활에 대한 긍지가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가혹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네 가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①환난에 견딘 것과 ②궁핍을 견딘 것 ③영적인 부요함에 이른 것과 ④유대인의 훼방에 견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인내로 견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①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과 ②마귀가 시험할 것 ③십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 등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한 것 아닐까요? 이제는 좀 더 낫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10절b).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견디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원망이 생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음질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게 주님처럼 인내와 충성의 마음을 주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살펴보게 될 교회는 바가모 교회입니다. 이 도시에는 “사단의 위”라고 표현된 강력한 세상 권력이 있었고,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소아시아의 제국주의 행정의 중심지로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있던 바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바가모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 세 가지의 칭찬을 합니다(13절). 그것은 ①어려운 환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믿은 것과 ②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③안디바가 믿음의 증인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날카롭습니다(14절). 그것은 ①교회에 스며든 발람의 교훈을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자세한 것은 민22-25장, 비교31:16을 보십시오). ②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면서 자유를 남용하게 하고, 영혼보다 육체가 훨씬 중요하므로 육체를 세상과 짝하게 하던 자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 역시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검을 들고 처벌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16절). 주님께서 세상의 우상과 죄악을 벌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물든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이기는 자들은 영생의 양식인 만나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17절).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나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순결케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두아디라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변방에 위치한 도시로 지리적인 환경이 방어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염색과 양모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이 노동조합은 곧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주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세 가지입니다. ①사랑과 믿음, ②봉사와 인내, 그리고 ③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것입니다(19절). 그러나 이 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①이세벨과 같은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한 것과 ②행음하고 우상에 빠진 것. 그리고 ③회개하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20,21절).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조직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죄에 빠지곤 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 여지없이 큰 환난과 자녀의 사망,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22,23절).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며(25,26절),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벽별을 받게 됩니다(27절). 참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순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리가 없어서 죽어 가는 화병의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데 지역은 해발 450미터의 산마루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한 때엔 부와 안전을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로마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 차례 정복당하므로 무기력하고 과거의 명성만을 자랑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사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한 마디의 칭찬도 없으십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단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책망만을 받았습니다(1절). 그래서 일깨워 남은 행위들을 굳게 하라고 권고합니다(2절). 또한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 하라고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3절).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그들 속에도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4절). 그들에게는 흰옷이 입혀질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선명하게 기록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5절).

사실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과거의 명성만을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성경말씀보다 전통이 교회의 권위가 되어 큰 목소리를 낼 때, 교회는 사데 교회처럼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간의 사랑” 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지역에 헬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커다란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파괴를 겪었고, 계속해서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①자신들의 지역을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였고 ②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으며, ③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8,10절). 그리고 이들에게는 큰 두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그들을 위협하던 자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과(9절),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10절b).

이들은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전파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림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11절).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다섯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①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며, ②그들은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필요가 없는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며, ③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게 될 것이며, ④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⑤마지막으로 주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12,13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참된 믿음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라오디게아 지방은 브루기아에 있는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과 은행업, 의류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안약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대신에 심각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입니다(15절). 차가워서 마시기에 시원한 물도 아니고 더워서 목욕하기에 마땅한 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 주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16절).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①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17절). 이들은 환경과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가난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별거벗은 상태였습니다(17절).

이들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주님은 그들에게 ①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18절a). 이것은 천국에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②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18절b).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③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18절c). 이것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는 것과(19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20절). 교회의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 주께 대한 열정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적인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는 요한이 보게된 두 번째 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음성입니다(1절).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십사 보좌에 앉아있는 이십사 장로들이 모습도 설명되고 있습니다(4절). 5절과 6절에는 다시 보좌의 위엄에 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 음성, 뇌성이 일어납니다. 일곱 등불로 묘사된 일곱 영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네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영과 네 생물들은 하나님 곁에서 그를 섬기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생물들과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십사 장로들은 ①복종과 순종하며(10절a) ②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합니다(10절b). 또한 ④하나님을 우주와 창조의 주님으로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11절).

한 번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신령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운명의 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역사의 종말에 성취될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은 ①안팎으로 쓰여져 있고(1절b), ②일곱 인으로 봉하여 졌으며(1절c) ③아무도 능히 그 인을 떼 수 있는 자가 없으며(2절) ④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도 없는 책입니다(3절).

그런데 이 책의 인을 떼 수 있는 분이 소개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5절). 이 운명의 책의 인을 떼 수 있는 예수는 ①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며 ②일곱 뿔로 묘사된 능력과 ③일곱 눈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6절).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의 책을 넘겨받으시자(7절), 그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시작됩니다. ①앞에서 소개된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그를 향해 경배합니다. 거문고를 연주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8절). 그리고 어린양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과 그가 피로 사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9,10절). ②만만이요 천천인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하며 예수를 경배합니다(11,12절). ③계속해서 하늘 위와 아래,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만물이 어린양 예수를 향해 경배하며 찬송합니다(13절).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양 예수로 인하여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양 예수를 향한 당신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양 예수는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만한 참되신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린양 예수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어 하나님의 책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어린양 예수에 의해서 일곱인 가운데서 네 가지의 인이 각각 떼어지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종말 그 자체는 아닙니다. 바로 종말직전에 벌어질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①첫째 인을 떼시자 흰말과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1,2절). 그는 마치 어린양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살후2:8-11). ②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3,4절). 그는 인간 세상에 분쟁과 폭력,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③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경제적인 힘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5,6절). ④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7,8절). 그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인류의 1/4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는 칼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과 같이 포획한 자들을 통하여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세상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을 앞두고 세상과 믿는 자들을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강과 안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의 날에 나로 견고케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 계속해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9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순교자를 증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도 ‘증인’이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공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10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보복심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옹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11절a). 흰 두루마기는 순결함과 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동참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입게 될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영광스러움과 안식을 누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다른 순교자가 더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1절b).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오기까지 세상에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위협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순교는 믿음의 꽃이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롬 1:18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니 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①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강이 피같이 됩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②불의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틈에 숨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낮과 어린양의 진노가 두려워서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를 가리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죄책감과 언제 붙들려서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극렬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의 진노는 우주적이고 개인적이며 아주 극렬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우며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 환난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 때에 닥치는 심판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 즉 동서남북에 서서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의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1절).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만큼 형벌은 더욱 두렵고 무겁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시간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종들이 당신의 소유요, 백성으로 인정되기까지 대환난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2,3절). 그리고 그들의 수는 십사만 사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일만 이천 명씩 선택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①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②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남은 자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롬9장-11장). 여러분도 이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결코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주님, 환난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에는 구원받게 될 십사만 사천명과는 다른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자들로, 아무도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배하기에 알맞은 흰옷을 입었고, 초막절을 경축할 때 사용했던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때에 백성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어린양을 향해 큰 소리로 구원 베푸심을 찬양합니다(9,10절).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11,12절).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합니다(13절). 요한이 당신이 알 것이라고 대답하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으로써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단12:1에 언급된 큰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에 겪어야 할 환난의 시기를 말하며, 흰옷은 흠 없고 순결함에 대한 상징입니다(계6:11). 그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로서 장막을 치시고(사4:5,6),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16절).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은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슬픔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17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그 환난 날에 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케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미래에 벌어질 일이 기록된 책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왔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이 30여분 동안 고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1절).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이 정적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고요함은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①하나님 앞에서 있던 일곱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모두 일곱 개의 나팔을 받습니다(2절).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하여 쏟으실 재앙을 알리는 천상의 나팔입니다. ②그런데 이번에는 나팔을 받지 않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3절). 그리고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지게 됩니다(4절). 금향로에 담긴 향은 속죄의 향기일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향기로운 냄새가 있었는데, 바로 속죄의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였습니다(레1:9). 그러므로 어린양의 속죄로 인한 거룩함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호소일 것입니다(계6:9-11). ③계속해서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겼습니다(5절). 이것들은 모두 재앙이 임박한 불길한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땅을 영원히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곧 재앙의 시작이다.

기도 제목 / ① 나로 하여금 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민감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앞에서 일곱 인이 일곱 나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이 가져오는 재앙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앙으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①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일로 인해서 땅과 수목, 그리고 푸른 풀들이 각각 1/3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6,7절). 이 재앙은 애굽에도 내린 적이 있는데(출9:24,25), 애굽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땅의 1/3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의 위기가 닥쳐질 것입니다. ②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의 1/3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1/3은 죽게 되며, 배들의 1/3이 깨져버리게 됩니다(8,9절). 이런 종류의 재앙 역시 애굽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출7:18). 이 재앙은 바다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③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1/3과 여러 곳의 물의 근원이 쓰게 되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10,11절). 이 재앙도 애굽에 내려졌던 것으로(출7:20,21), 먹을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④넷째 나팔이 불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의 1/3이 각각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낮과 밤의 1/3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12절). 이것은 출10:22,23절에 나타난 재앙을 반영한 것으로 하늘의 1/3에 대한 재앙입니다(눅21:25-28).

땅과 하늘의 모든 결국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심판을 피할 곳 없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 나님의 재앙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13절). 오늘의 본문은 하 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괴롭힐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자, 세상을 혼란시킬 악한 존재인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깊은 곳” 또는 “밑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감옥인 “무저갱(Abyss)”의 열쇠를 받습니다(1절). 그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2절). 또한 전갈의 권세와 같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가 올라옵니다(3절). 출10:1,2과 욥1:2-2:11을 보면 황충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는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힐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그 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오직 계속해서 전갈에게 물려 독이 퍼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가혹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4-6절).

요한은 계속해서 황충이에 대해 설명합니다(7-10절). 요한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를 군마나 파괴적인 의미, 또는 군사적 이미지를 빌려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악한 영들의 초자연적인 권력과 무서운 세계의 단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황충이들이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바돈” 또는 “이블루온”이라는 무저갱의 사자를 임금을 모시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죽음자체가 보낸 지옥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악한 권세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첫째 화라고 일컬어진 다섯째 나팔에 이어서, 역시 “화”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두 나팔이 뒤따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섯째 나팔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⑥여섯째 나팔이 불려지자,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13,14절).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천사는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정해진 시기에 전 세계 인구 1/3을 죽이는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15절). 넷째 인에서(계6:7,8) 지구상의 1/4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에서 산 자들의 1/3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은 죽는 셈입니다(단12:1, 마24:21).

이렇게 세계 인구의 1/3을 죽음에 내몰기 위해 타락한 네 천사에게 이만만(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따라옵니다(16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홍갈이 있는 자들이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무서운 파괴를 동반한 가공할 세력이 분명합니다. 이들에 의해 경건치 않고 악한 자들 가운데 1/3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18절). 그런데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20,21절). 이들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내 영혼에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주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제 일곱째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질 차례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4절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선포를 전하는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유대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1절). 그런데 그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곳에는 천사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2절). 이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발하였고,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3,4절). 이 계시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계시일 것입니다. 이 천사에 대한 장황한 소개 후, 5절에서 7절까지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①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맹세합니다(5,6절). ②그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7절).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복된 소식이 성취되었듯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책은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합니다(8,9절). 하늘의 음성에 요한이 순종하여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10절). 책을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뜻이며(렘15:16), 책의 달고 쓰다는 의미는 신자들에게는 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쓴 것이 되리라는 뜻입니다(겔2:8-3:3).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불신자에게는 쓰라린 메시지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며 송이꿀보다 달지만 그 공의는 쓰디 씁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송이꿀보다 달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한이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본문에서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1절). 여기서 갈대는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며,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1절). 그가 측량하게 될 장소는 ①하나님의 성전과 ②제단, 그리고 ③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 의해 마흔 두 달, 즉 3년 6개월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절).

우선 '측량'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①하나님의 성소의 장엄함을 찬양하는 의미이고(겔40:3-42:20, 계21:15-17), ②소유권을 뜻하는 것이며, ③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보존하는 의미이고(슥2:1-5), ③징계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2개월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있을 대환난의 시기를 의미하는데(단7:25, 12:7, 계12:6, 13:5,6, 마24:15),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짓밟으며, 가장 큰 대학살이 벌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성전 전체가 지배하고 더럽히며, 이곳에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측량하신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한이 '작은 책'과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과(3-6절), 두 증인의 죽음이(7-11), 그리고 두 증인이 부활하는(11-13절) 광경이 나옵니다. 우선 ①두 증인의 사역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마흔 두달, 혹은 3년 반) 동안을 예언하는 일입니다(3절). ②두 증인의 정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4절). ③두 증인은 아무도 해칠 수 없도록 보호받고(5절),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며, 비와 물과 재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6절).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④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졌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7절). 그리고 ⑤이들의 시체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8절). 이곳은 소돔이나 애굽, 그리고 예수께서 모함받고 죽으신 예루살렘처럼, 진실한 신자가 핍박받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⑥사흘 반 동안 전세계가 그 시체를 목도하였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9절), 오늘날은 통신의 발달로 이런 일이 더욱 가능해 졌습니다. 이윽고 ⑦두 증인의 죽음으로 사탄은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며 기뻐하는 광경이 나옵니다(10절).

그러나 ⑧두 증인이 사흘 후 갑자기 부활하여 발로 일어서자,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11절) ⑨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고, 이들은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12절). 그러자 ⑩큰 지진과 함께 성 1/10이 무너지고 7천명이 지진으로 죽게 됩니다(13절).

참된 증인은 마침내 예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가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이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14절). 이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 심판까지 포함하며, 대접심판에 대한 도입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 네 가지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①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고 선포되는 장면입니다(15절). ②또다시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16,17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권능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③그리고 이방나라가 최후의 반역을 일으킬 것과 그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며,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왔다고 합니다(18절). 그러자 ④또 하나의 장엄한 사건이 요한에게 전개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19절). 요한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요1:51).

아직도 우리는 실감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공포와 비극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참된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참된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환난 가운데 계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일곱째 나팔과 음성이 계11:15에 소개되어 있지만, 일곱째 나팔이 자세하게 계시된 곳은 16장입니다. 따라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다른 관점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7년 중 나중 3년 반의 시대에 있을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해를 입은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1절). 두 번째 인물은 여인이 해산한 아이입니다(2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잡니다. 세 번째는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큰 붉은 용입니다(3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①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②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 용은 계12:9에 나타나는 사탄일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단7:7,8,24, 계13:1에 나타나는 사탄의 지배력을 의미하며, 일곱 면류관은 세계 정부의 왕과 함께 다스릴 열왕을 상징합니다(단7:24). 그리고 ③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시2:9, 계19:15). 그리고 아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은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전쟁은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소개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는 광경이 나타납니다(7절). 이 사탄의 이름은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전쟁에 패한 마귀의 세력은 땅으로 내어쫓깁니다(8,9절). 이것은 선과 악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투이며, 사탄은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

전쟁이 천사들의 승리로 끝나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찬송은 천년 왕국의 도래와 더불어 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신자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평가되고(10절), 어린양의 피와 순교한 형제들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이 패했다고 합니다(11절). 그러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12절).

우리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만큼 용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패배감에 싸여서 살아가지 말고, 죄와 악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와 중인들의 외침, 즉 말씀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대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같아서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이시며,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이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은 땅에 내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광경이 나옵니다(13절). 그런데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낮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습니다(14절). 출19:4과 신32:11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의 임재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24:16, 막13:14, 눅21:21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대환난의 삼 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단7:25, 12:7). 광야에서의 기적적인 식량 공급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15절). 그러자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16절). 물은 구약에서 전형적인 심판과 환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렘47:2, 시32:6, 69:15).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17절).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여자의 씨'를 의미하며 창3:15의 '여자의 후손'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환난의 날에 나를 도우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는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나온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의미하기 때문에(계17:15) 이 짐승은 세상에서 나올 강력한 통치자를 뜻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지적했습니다. 2절이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범은 헬라(단7:6), 곰은 메대과사(단7:5), 사자는 바벨론(단7:4)을 상징하므로, 짐승은 세 나라를 통합한 국가인 로마를 의미하며, 마귀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받은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2절).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3절). 당시 사람들은 네로가 살아있으며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후대의 사람들은 네로가 아닌 못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과 같은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을 장차 벌어질 대환난의 시기에 나타날 정치적 세력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온 땅으로 하여금 자신과 마귀에게 경배를 돌리게 할 것입니다(4절). 달리 말하자면 모두가 그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은 더 나아가 온 땅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언변으로 마흔 두달 동안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합니다(5,6절).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되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력을 소유하게 됩니다(7,8절). 그러나 이때에도 인내와 믿음,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9,10절).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미혹시키며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 이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11절). 그의 목적은 ①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12절). 또한 ②큰 이적을 베풀면서 온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13,14절). ③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만일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 버립니다(15절). ④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16절), ⑤표를 가져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합니다(17절). 요한은 이 두 번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며 그 수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이라고 합니다(18절).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비교해 볼 때, 우선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계19:20, 20:21). 그래서 그는 어린양을 닮았지만 그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것입니다(11절).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는 자들만을 경제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모든 경제적 통제를 통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갈 것입니다. 666이라는 이 짐승에 대한 의미는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명확한 것은 본문에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결코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나 아닌 멸망의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진리에 서서 거짓의 영과 싸우게 하여주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계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계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적이요, 마귀적이요, 신성모독으로 치달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계7:4-8에 나타났던 144,000명의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666이라는 표 대신에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1절). 이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선포가 이루어집니다(2-5절). 이들은 구속받은 자들로 정절과 충성과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 천사가 각각 ①심판이 임박함과 하나님의 구원(6-7절). ②그리고 우상의 상징인 바벨론이 멸망(8절). ③또 둘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9-11절). 그와 동시에 십 사만 사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다고 인정되고, 대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12,13절).

그리고 또 다른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1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재앙(일곱대접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이들에 의해 추수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 대한 영광스런 분리와(14-16절),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한 끔찍한 선고가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17-20). 이렇게 14장은 우리의 미래에 확실하게 구별될 날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가 뚜렷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최후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의 본문에는 일곱 천사에 의해 일곱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합니다(1절).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양의 노래를 합니다(2-4절).

그런데 이 일이 있는 후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옵니다(5,6절).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섰던 네 생물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줍니다(7절).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올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계4:6). 그러나 이들은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식을 베푸실 것이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배로 신을 삼고 우상에 빠져 미혹된 자들에게는 일곱 재앙의 공포가 전주곡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혔고, 어린양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안식 아니면 진노를 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린양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소서. ② 7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8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서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도 바울의 변증이 담겨 있는 서신이다.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으로(현재는 터키), 소아시아를 주도하던 지방이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갔다가 1차로 투옥될 무렵, 이단의 교리들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①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로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종교적 의식(2:16,17)과 할례를 강조하였고(2:11, 3:11), ②금욕주의를 내세워 “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2:21,23) 하였으며 ③천사를 숭배하였고(2:18), ④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으며(1:15-20, 2:2,3,9에서 바울이 암시하였듯이) ⑤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런 지식을 자랑하였고(2:18, 2:2,3에서 바울이 강조하였다), ⑥인간의 지혜와 전통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사상들이 스며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다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재정립하고, 그리스도의 뛰어난심과 만유의 주재이심,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만유위에 계신 분이라고 변증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2:9)라는 주제가 중심 메시지이다. 그리고 1,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르치고, 3장과 4장은 ‘위엣 것을 사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철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에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

게 된다. 당부하기는 이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확신, 그리고 그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예수는 만유의 주시며, 내 삶의 주가 되시도록 말이다.

골로새서의 기본구성

1:1-14 서론

- 문안 인사(1:1,2)
- 감사(1:3-8)
- 기도(1:9-14)

1:15-23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1:24-2:5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사역(1:24-29)
-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간절함(2:1-5)

2:6-23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라

-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2:6-15)
- 거짓 교사를 배척하라(2:16-19)
- 초등 학문을 버리라(2:20-23)

3:1-4:6 그리스도는 삶의 주인이시다

-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3:1-17)
-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3:18-4:1)
- 삶의 목적(4:2-6)

4:7-18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

제 1 과: 골로새서 (1)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찬 송 / 48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15-23

먼저 읽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와 삶에 대하여 감탄하거나 존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때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순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사회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그 어떤 공헌이나 노력도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들인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흙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다시 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가장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께서 진흙같은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5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의 신분(I) - 하나님이심

1. 사도 바울이 15-20절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몇 번 사용하고 있을까요?(각 절 단위로 살펴서 보십시오)

①15절 - ②16절 - ③17절 - ④18절 - ⑤19,20절 -

2.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각 구절에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의미도 서로 돌아가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①15절a -

의미 -

②15절b -

의미 -

③16절a -

의미 -

④17절a -

의미 -

⑤18절a -

의미 -

[19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의 신분(II) - 종보자이심

3.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화목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길 기뻐하셨습니까?

① 19절 -

② 20절a -

③ 충만의 의미 -

④ 화평(peace)과 화목(reconcile)의 차이 -

4.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라고 했습니까?

① 롬8:19-22

5.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① 딤후2:5 -

② 히12:24 -

[21절부터 23절] 그리스도의 신분(III) -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6.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 상반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하여 충분히 관찰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21절 첫머리의 "전에"라는 것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창3:6)

②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롬1:18)

③ 예수의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골1:22)

7.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중보자 사역을 통해서 신자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④ 22절b -

8. 사도 바울은 23절 상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중보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①

②

③

-
8. 사도 바울은 23절 하반절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무엇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① 23절b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자신도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냥 위대한 성인(聖人) 중의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육체로 막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중보 사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룩한 희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주님처럼 중보자적인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를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제자들이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였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던 이방인 백부장까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삶 속에서 주님처럼 희생과 자신을 포기함이 없으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예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칭호였습니다. 행11:26). 솔직하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3.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 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형제가 되든지, 아니면 불신자들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든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를 맺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의 사람입니까? 또는 이런 착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삶이 엉망이어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게 해놓고는 그것을 불신자의 탓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삶으로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제 2 과: 골로새서 (2)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이심

찬 송 / 50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6-15

먼저 읽기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와 지식이 존재합니다.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과학, 문학, 등등 인간이 이루고 성취한 학문은 점점 그 수준이 뛰어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대의 문명과 학문은 사도 바울 시대의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대에도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으며,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된 죄성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복지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지만 오히려 범죄율의 증가와 이기주의 그리고 인간관계는 더욱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의 가능성은 무기력함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려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놀라운 승리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시며, 가장 훌륭한 유대의 예식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와 세상 학문은 비교할 수 없음

1.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취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① 6절a -

② 8절a -

2.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7 절a -

의미 -

② 7절b -

의미 -

③ 7절c -

의미 -

④ 7절d -

의미 -

3.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8절a -

② 8절b -

4.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전(tradition)과 초등 학문(the basic principles)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을 토대로 말해보십시오.

① 2:16 -

② 2:18 -

③ 2:21 -

④ 2:8 -

5.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유전이나 초등 학문에 비
교할 수 없는 이유를 그의 신성에 두고 있습니다. 9절의 의미는 예
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 지혜 혹은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인
데, 예수의 신성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① 마14:25 -

① 히4:15 -

② 고후5:21 -

6.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결론을 짓고 있
습니까?

① 영향(10절a) -

② 결론(10절b) -

[11절부터 15절] 그리스도는 모든 예식보다 뛰어남

7. 구약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① 11절a -

② 의미(빌3:3) -

8.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12절b -

9.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① 13절a -

② 의미(엡2:11,12) -

10. 바울은 13절-15절에서 걸쳐서 하나님께서 할례대신 무할례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처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① 13절 -

② 14절 -

③ 15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은 고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문인 율법과 유대종교에 심취할 뿐 아니라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갈1:14).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방식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우상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며, 이것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얼마만큼 쏟으십니까?

- ①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 ②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 ③ 나는 삼위 하나님과 성경적 방식대로의 삶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가?

2. 사도 바울이 또한 가지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모든 의식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지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영적인 거듭남과 날마다의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성찬, 그리고 세례 그 자체를(행하는 모든 순서들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보다 더 중요시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① 나는 예배, 성찬, 세례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② 나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예배, 성찬, 세례와 같은 교회의 의식을 따라다니는 율법의 삶인가?

제 3 과: 골로새서 (3)

그리스도는 삶의 주인이시다

찬 송 / 470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1-17

먼저 읽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쉽게 듣게 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 중독, 성적인 욕망에 빠진 사람은 섹스 중독, 노름에 빠진 사람은 도박 중독, 술에 빠진 사람은 알코올 중독, 요즘 들어서는 심지어 컴퓨터의 오락이나 인터넷에 중독 되거나 주식에 중독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의 본성에 끌려 다니는 노예였고,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주인은 예수이시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의 노

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배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시도록 성령께 의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부터 4절까지] 위에 것을 찾으라

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위에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① 요4:34 -

② 요6:27 -

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① 골3:5 -

② 골3:8,9 -

③ 마6:31,32 -

④ 요일2:16 -

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3절 -

② 4절 -

[5절부터 11절까지] 새사람을 입으라(그리스도로 옷입으라; 롬13:14)

4.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6절 -

5. 사도 바울은 새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① 5절a -

② 8절a -

③ 10절 -

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11절a -

② 11절b -

[12절부터 17절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들

7.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흔들려는 여러 이단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14절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① 12절 -

② 13절 -

③ 14절 -

8.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게 미혹되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15절a(참고; 요14:27, 요16:33) -

15절b(이유) -

② 16절a -

16절b(이유) -

9.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① 17절a -

② 17절b(15절c)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위에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 현실 속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땅에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적당하게 위에 것과 땅의 것을 병행하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는 위에 것을 향해 전력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닌 생각조차도 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위에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이 말입니다.

2.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새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마땅히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설명합니

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버린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3. 모든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정신이나 이념, 그리고 규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한 원리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입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들에 대해 맞서야 할 것입니다. 위협하는 세력들과 똑같이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골3:6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반응하십니까? 복수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니까?

제 4 과: 골로새서 (4)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찬 송 / 356장
읽을 말씀 / 4장
공부할 말씀 / 4:2-17

먼저 읽기

인생에 있어서 연습이 있거나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 저것 해 볼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연습이나 두 번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직 단 한번의 기회뿐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는 침몰하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이 정해

져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당부하기는 사도 바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에의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셨던 주님과 사도 바울의 생애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2절부터 6절] 복음의 전파를 위한 삶의 태도

1. 사도 바울이 이단의 위협을 맞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2절a -

2.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① 2절b -

3.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하여 부탁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별히 4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① 3절 -

② 4절 -

③ 4절의 의미 -

4. 사도 바울은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5절b -

② 의미 -

5. 바울은 외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6절a -

② 의미 -

[6절부터 17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6.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들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인지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 이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도 살펴봅시다.

① 7절a -

평가(7절b) -

수고(절) -

② 9절 -

평가(9절a) -

수고(9절b) -

③ 10절 -

평가(행19:29, 20:4, 27:2) -

수고(행19:29) -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음

④ 10절 -

평가(행15:37-39, 몬1:24, 벤티전5:13) -

수고(딤후:11) -

⑤ 11절 -

평가(11절b) -

수고(11절c) -

⑥ 12절 -

평가(12b) -

수고(13절) -

⑦ 14절 -

평가(14절) -

수고(몬1:24, 딤후4:11) -

⑧ 14절 -

평가(딤후4:10) -

수고(몬1:24)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생애의 모든 시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헌신뿐 아니라 시간애의 헌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헌신은 가난하건 부요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2.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도와왔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4 과

십자가

찬 송 / 507장
읽을 말씀 / 사53:4-6,
요1:29,
마27:46
공부할 말씀 / 요1:29

1.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정신적인 것이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2. 당신이 체험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우리라고 생각하는 고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예를 들면 위암)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 27:46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 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 위에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어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소식인 것입니다.

다음의 짧은 글을 읽어 보십시오.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시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교무실로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반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용서해 줄테니 가서 반에 가서 아이들에게 손을 내리고 귀가하게 하라고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반장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기쁜 발걸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4. 위에서 기술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복음전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 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5.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 두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0년 8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김동하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